

報 道 資 料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3. 10.31

담당부서	건설경제연구실	연구책임자	이홍일 연구위원 박철한 책임연구원	전화번호	3441-0611 3441-0641
------	---------	-------	-----------------------	------	------------------------

제 목: 2013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조사결과

10월 CBSI 1.1p 상승한 62.3 기록

- 건설/부동산 대책 입법화 지연 영향, 건설업 체감경기 개선 미미 -

- 2013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p 상승한 62.3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2.8p 하락하며 3월(60.3) 이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함.
- 그러나, 상승 폭이 1.1p에 그쳐 CBSI 수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업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특히 전월인 9월 조사시 10월 CBSI 전망치가 9월 실적치 대비 8.5p 상승한 69.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10월 실적치는 이에 훨씬 못 미친 62.3을 기록함.
- 이는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건설업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결국 올 들어 CBSI는 1월(65.4)과 5월(66.1)에 60선 중반을 소폭 상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하여 60선 초반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저조한 흐름을 보임.
- 한편, 2013년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1.8p 상승한 64.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8p 상승하는데 그쳐, 건설업체들은 11월에도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 11월 CBSI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에도 CBSI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7.2p 하락한데 이어, 10월에도 전월비 1.1p 하락한 84.6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며 체감경기 수준이 악화됨.
-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18.6p 하락) 전월인 9월에 1.9p 상승한 중견업체 지수는 10월에도 통계적 반등 효과로 전월비 1.9p 상승했지만, 지수 자체는 51.9로 여전히 저조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상승한 48.1을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가장 심각함.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상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6, 93.9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9, 87.1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7.0, 72.1을 기록해 자금상황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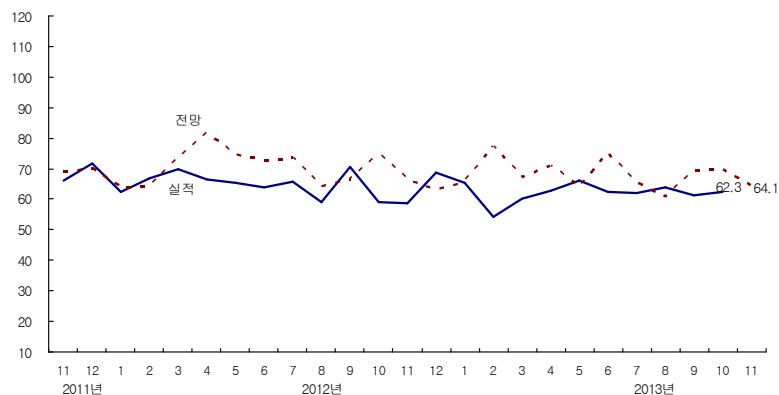
※ 본 보도자료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cerik.re.kr)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2013년 10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

10월 CBSI 1.1p 상승한 62.3 기록
건설/부동산 대책 입법화 지연 영향, 건설업 체감경기 개선 미미

- 2013년 10월 건설기업경기실사지수(CBSI)는 전월비 1.1p 상승한 62.3을 기록함.
- CBSI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2.8p 하락하며 3월(60.3) 이후 6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10월 들어서는 소폭 반등함.
- 그러나, 상승 폭이 1.1p에 그쳐 CBSI 수치 자체는 여전히 기준선(100.0)에 훨씬 못 미친 60선 초반에 불과해 건설업 체감경기가 매우 저조한 상황임.
- 특히 전월인 9월 조사시 10월 CBSI 전망치가 9월 실적치 대비 8.5p 상승한 69.7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실제 10월 실적치는 이에 훨씬 못 미친 62.3을 기록함.
- 이는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가 지연되면서 건설업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결과로 판단됨.

< 경기종합 BSI 추이 >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결국 올 들어 CBSI는 1월(65.4)과 5월(66.1)에 60선 중반을 소폭 상회한 것을 제외하면 지속하여 60선 초반 내외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저조한 흐름을 보임.

- 업체 규모별로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대형업체 지수는 소폭 하락하고, 중견, 중소기업 지수는 소폭 상승함.
- 대형업체 지수는 전월인 9월에 전월비 7.2p 하락한데 이어, 10월에도 전월비 1.1p 하락한 84.6을 기록해 2개월 연속 지수가 하락하며 체감경기 수준이 악화됨.
- 지난 6월 이후 3개월 연속 하락하다가(18.6p 하락) 전월인 9월에 1.9p 상승한 중견업체 지수는 10월에도 통계적 반등 효과로 전월비 1.9p 상승했지만, 수치 자체는 51.9로 여전히 저조함.
- 중소기업 지수는 전월비 2.8p 상승한 48.1을 기록했으나, 상대적으로 대형, 중견업체에 비해 체감경기 침체 수준이 가장 심각함.

< 규모별·지역별 경기종합 BSI 추이 >

구 분		12월	2013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전망
			1월									실적	전월 전망치	
총 합		68.9	65.4	54.3	60.3	62.8	66.1	62.4	62.1	64.0	61.2	62.3	69.7	64.1
규모별	대형	92.9	85.7	72.7	69.2	71.4	78.6	78.6	85.7	92.9	85.7	84.6	92.9	76.9
	중견	64.0	66.7	48.0	66.7	66.7	66.7	64.3	50.0	48.1	50.0	51.9	56.0	61.5
	중소	46.3	40.0	40.0	42.6	48.1	50.9	41.2	48.1	48.1	45.3	48.1	58.0	51.9
지역별	서울	79.3	76.2	63.6	64.8	66.9	68.6	71.6	68.7	70.9	73.1	71.2	80.8	74.6
	지방	52.1	49.0	41.8	53.6	58.7	62.2	52.6	51.9	53.3	39.3	49.0	49.7	4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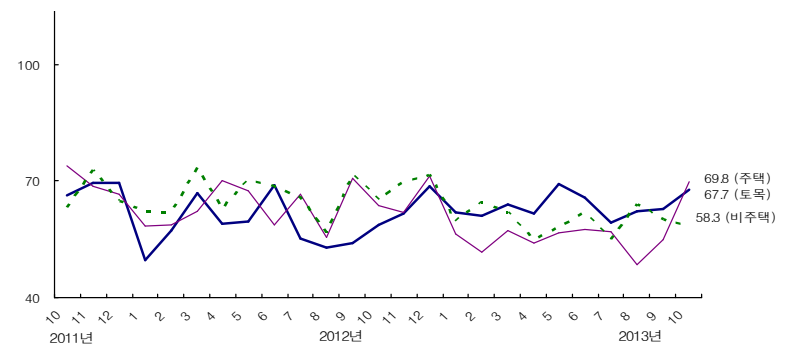
자료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한편, 2013년 11월 CBSI 전망치는 10월 실적치 대비 1.8p 상승한 64.1을 기록함.
- 실적치 대비 익월 전망치가 1.8p 상승하는데 그쳐, 건설업체들은 11월에도 건설경기의 침체 수준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통상 11월 CBSI는 연말 공공발주 증가 등 계절적 요인에 의해 상승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나, 건설/부동산 관련 대책들의 국회 입법화 과정에 큰 진전이 없을 경우 11월에도 CBSI가 크게 상승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 지역별로 10월 경기실사지수를 살펴보면 서울 업체가 전월 대비 1.9p 감소한 71.2를, 반면 지방 업체는 전월대비 9.7p 상승한 49.0을 기록해 지수가 개선됨.
- 서울업체는 지난 8월과 9월 2개월 연속 2p 이상 증가하였는데, 9월에는 전월보다 1.9p 감소한 71.2를 기록해 지난 8월부터 3개월 연속 70선 초반에 머물.
- 지방업체는 전월 대비 9.7p 상승한 49.0을 기록함. 지방업체 지수가 상승한 것은 지난 8월 지방의 일부 건설관련 업체 부도 소식에 급격히 심리가 악화되어 한달만에 지수가 14.0p나 급감한데 따른 통계적 반작용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실제 10월 지수 49.0 자체는 지난 8월 수준인 53.3에도 미치지 못해 경기가 지속적으로 부진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2013년 11월 전망치의 경우 서울업체는 10월보다 3.4p 증가한 74.6으로 70선 중반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였으며, 지방업체는 0.4p 감소한 48.6으로 10월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함.

10월 공사 물량지수 전월 대비 18.6p 증가한 73.6 기록

- 2013년 10월 공사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18.6p 증가한 73.6을 기록, 지난 2012년 74.4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올 들어 처음으로 70선을 넘어섬.
- 공사 물량 지수는 지난 6~9월까지 4개월 연속 4개월 연속 50선을 기록하며 낮은 수준을 기록하였음.
- 특히, 지난 9월 지수는 55.0으로 올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9월 지수로는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매우 부진하였음.
- 10월 지수 73.6은 올 들어 가장 양호한 수치로 공사 물량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며, 전월대비 증가폭 18.6p는 지난 2008년 12월 22.8p 상승한 이후 4년 10개월 만에 최대치임.
- 물량 지수가 전월 대비 크게 상승한 것은 정부의 추경 공사용량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가운데 지수가 40~50선에 불과한데 따른 영향으로 통계적 반등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결국 물량 침체 상황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되나, 지수가 향후 지속적으로 회복될지는 추이를 좀 더 살펴봐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공종별로 주택과 토목 물량 지수가 개선된 반면, 비주택 물량 지수는 전월보다 하락함.

< 공종별 공사물량 BSI 추이 >



- 토목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5.0p 상승한 67.7을 기록해 지난 5월 69.1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비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9p 하락한 58.3을 기록, 2개월 연속 감소 하였으며, 지난 7월 55.0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50선으로 떨어짐.
 - 주택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15.0p 증가한 69.8을 기록해 지난 2012년 12월 71.4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양호한 수치를 기록함. 이는 지난 9월 수치가 54.8로 50선에 불과한데 따른 통계적 반등효과 및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반영된 결과로 판단됨.
- 업체 규모별로 대형 업체 물량지수가 전월 대비 43.4p 증가해 전체 물량지수 상승을 이끈 가운데 중건과 중소 업체 물량 지수도 각각 1.6p, 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대형업체의 물량지수는 지난 9월 64.3으로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10월에는 이보다 43.4p 증가한 107.7을 기록, 물량 상황이 전월보다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보다 14.3p 증가한 100.0으로 토목 물량 개선이 두드러진 가운데, 주택과 비주택 또한 각각 12.6p, 5.5p 증가한 76.9로 전월보다 지수가 개선됨.
 - 중건업체는 전월보다 1.6p 증가한 59.3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과 비주택이 각각 6.0p, 9.6p 감소해 50선 수준에 불과해 부진하였으나, 주택이 전월보다 20.9p 증가한 76.9로 지수가 크게 개선되었음.

< 공사물량 BSI >

구 분		종합	규 모			지 역 별	
			대형	중건	중소	서울	지방
전체	실적	73.6	107.7	59.3	50.0	89.0	50.4
	전망	73.9	92.3	76.0	50.0	88.8	52.1
토목	실적	67.7	100.0	50.0	50.0	78.3	51.8
	전망	72.6	92.3	68.0	54.9	85.5	54.1
주택	실적	69.8	76.9	76.9	53.3	75.1	61.5
	전망	76.3	84.6	84.0	57.8	82.3	66.8
비주택	실적	58.3	76.9	48.1	48.0	65.5	47.2
	전망	59.6	76.9	53.8	45.8	67.9	47.0

주 : 실적은 2013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

- 중소기업체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8.8p 증가한 50.0을 기록, 지난 5월 50.0 이후 올들어 두 번째로 50선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보다 3.6p 증가한 78.3을, 주택이 16.6p 증가한 75.1을, 비주택이 3.0p 증가한 65.5을 각각 기록함.
- 결과적으로, 대형업체는 토목물량 지수의 개선이 두드러졌고, 중건과 중소기업체는 주택물량 지수가 개선됨.

- 지역별로 서울은 전월 대비 27.6p 증가한 89.0을, 지방도 9.5p 증가한 50.4를 각각 기록함.

- 서울업체의 물량지수는 전월 대비 27.6p 증가한 89.0을 기록함. 공종별로 토목이 전월 대비 3.6p 증가한 78.3으로 가장 양호했으며, 주택이 전월보다 16.6p 증가한 75.1을 기록, 전월 대비 증가폭이 가장 두드러졌음. 한편 비주택 또한 3.0p 증가한 65.5로 지수가 소폭 개선됨.
- 지방업체 물량지수는 전월보다 9.5p 증가한 50.4를 기록, 지난 7월 52.6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50선을 기록함. 공종별로 주택이 전월 보다 16.1p 증가한 61.5를 기록해 지수가 개선되었으며, 토목도 전월보다 11.0p 증가한 51.8을 기록함. 다만, 비주택은 6.7p 감소한 47.2로 지수가 더욱 악화됨.

- 2013년 11월 공사물량 전망지수는 10월 실적치보다 0.3p 상승한 7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10월과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

- 공종별로는 주택 물량지수가 10월보다 6.5p 상승한 76.3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어 타 공종보다 주택물량 지수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토목 또한 4.9p 상승한 72.6으로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다만, 비주택은 1.3p 상승한 59.6으로 10월과 비교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 상대적으로 양호,
자금 관련 상황 어려움**

- 자금·인력·자재부문 지수를 살펴보면 인력 및 자재수급 상황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가운데, 자금상황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인력 및 자재수급 지수는 각각 94.6, 93.9를 기록해 타 부문 지수에 비해서 상황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 인건비와 자재비 지수는 각각 85.9, 87.1을 기록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 공사대금수급 및 자금조달 지수는 각각 77.0, 72.1을 기록해 자금상황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금 · 인력 · 자재 BSI >

구 분			총합	규 모 별			지 역 별	
				대형	중견	중소	서울	지방
자금	공사대금수급	실적	77.0	92.3	70.4	66.7	83.9	66.6
		전망	78.2	84.6	84.6	63.5	84.6	68.7
	자금조달	실적	72.1	84.6	63.0	67.9	73.0	70.7
		전망	70.8	84.6	65.4	60.8	76.5	61.9
인력	수급	실적	94.6	100.0	103.8	77.8	98.7	88.2
		전망	97.5	100.0	108.0	82.7	100.9	91.7
	인건비	실적	85.9	100.0	96.3	57.4	96.0	70.6
		전망	91.3	100.0	100.0	71.2	98.1	81.0
자재	수급	실적	93.9	107.7	92.6	79.2	98.2	89.2
		전망	96.5	107.7	92.3	88.2	100.0	92.7
	비용	실적	87.1	107.7	92.6	56.6	99.9	69.8
		전망	82.2	100.0	76.9	67.3	90.9	69.7

주 : 실적은 2013년 10월 실적지수이며 전망은 11월 예측지수임.